

월요광장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정권 유지를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던 부림사건이나 강기훈 유사대필 조작사건 판결의 일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를 위조했다는 기사가 언론을 가득 채웁니다.

문득 철학적 난제인 '민히하우젠 트릴레마'(Munchhausen Trilemma)가 떠올랐습니다. 민히하우젠 남작은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의 주인공입니다. 하루는 남작이 말을 타고 가다 늪에 빠졌답니다. 늪에 빠진 말과 자신을 끄집어 내기위해 자기 머리채를 자기 손으로 잡아당겨 늪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영사증명서, '민히하우젠 트릴레마'?

철학적 난제 중 '민히하우젠 트릴레마'는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으로, 증명해야할 사항을 증명된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이 중세의 민히하우젠 남작같은 황당한 이야기가 바로 '영사증명서'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일본 등 외국 관련 조작 사건마다 '간첩'임을 입증한 증거가 바로 '영사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불법 체포하여 두 달여 고문 가혹행위 끝에 만들어진 심문조서를 제외하면 '영사증명서'가 유일한 증거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영사증명서'는 외무부가 파견한 외교관이 아니라 안기부가 일본에 파견한 수사관에게 사실 조화를 하면 그 수사관이 '영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주문자(안기부)가 원하는 내용에 맞춰 '김모는 간첩'이라거나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작성하여 안기부로 보내고, 그걸 검사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영사증명서'는 늪에 빠진 민히하우젠 남작처럼 '증명해야 할 것'을 '증명된 것'으로 둔갑시키는 마법을 부립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일본 관련 간

첩조작 사건인 김양기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영사증명서'를 불까요? 김양기를 간첩으로 포섭했다는 재일 지도원 김철주씨는 8살 때부터 조총련 선전부장이었다는 황당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기부도 황당하다고 여겼을까요? '정정 확인서'를 다시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 다음 날 법원에 도착했다지요.

역시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오주석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일본 친척의 인적사항이 '요리사'에서 '대남공작원'으로 바뀝니다. 안기부가 작성한 '사실 조사 결과 보고'에서는 '동향 및 신상관계를 아는 사람이 없어 구체적 사상과악이 곤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증명서'에서는 '대남 적화통일을 위해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세 개의 '영사증명서'가 모두 양식이 다르고, 도장도 틀리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증명되어야할 공소장 내용이 증명되어 유죄가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는 마치 시간을 건너뛰는 데자뷰를 보는 듯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안기부가 수사하고, 그 내용에 맞게 외국 파견된 안기부 직원인 '영사'가 조작하여 작성한 '영사증명서'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었던 비극적인 일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국정원이 '영사증명서'를 통해 '증명해야 할 사항'을 '증명된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묘수로 '민히하우젠 트릴레마'를 해결하다보니 이제는 '민히하우젠 증후군'으로 나아갈 지도 모르겠군요.

이 증후군에 걸리면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지어내고, 마침내 자기도 그 이야기에 도취되어 버리는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한 행위는 범죄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원의 재판 제도를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라니요, 주권국가로서 골격은 어디로 간 것인지 부끄럽기도 합니다. 영사증명서, 군사독재 시절 비극이었던 한 장면이 이제는 희극으로 되풀이 되는 걸까요?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도 볼 수 없다." 영사증명서가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법조칼럼



임종성
광주지검 형사3부 검사

법조칼럼을 통해 제가 검사를 하는 동안 겪었던 두 가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 일 모두 검사실이 아닌 밖에서 겪었던 일이지만 제가 검사로 근무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이전 근무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유명한 소설가 분으로부터 들었던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 뇌리에 아로새길만한 좋은 말씀이 바로 '법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소설을 쓰시는 분이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신다니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저로서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분은 철학에 '법'이라는 한자를 쓰시고 난 후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법이란 글자를 보

'물 흐르듯 가는 것'이란

면, 물 수(水)에 갈 거(去)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공부도 수년간 하고 그 이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로 근무하면서 한시도 법이라는 글자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부끄럽게도 정작 '법'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지는 않았습다. 잠시 제가 생각하는 사이에 그 소설가 분은 "물이 흐르듯 가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글자입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속으로 '나는 법이라는 한자가 의미하듯이 물이 흐르듯이 순리대로 검사 일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게 되었고, 부끄럽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저는 또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가는 것일까' 라는 답을 찾기 위해 무던히 고민했습니다. 아직 답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일말의 의심도 없는 100% 진실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오관을 덜 하려면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보자' 라는

결론입니다. 무엇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순리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만큼이라도 자연스러움을 택 하자는 마음에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 밑 뜻이 밀려오는 사건 앞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급적 사건과 관련된 분들의 말을 많이 듣고 명답도 자주 해 들으려고 하니 안 들리던 귀가 조금씩 열리는 것 같습니다. '법률가와 소설가' 라는 다소 이질적인 만남이지만, 저는 그 한 번의 만남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은, 몇 주 전에 휴일에 집에서 본 영화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주인공 여성이 생활고를 타개할 목적으로 남편의 후배로부터 원석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4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원석인 줄로만 알고 이를 운반하다가 프랑스 오프로 공항에서 코카인 운반 및 소지죄로 체포되어 프랑스령 작은 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여성을 위해 756일간 필사적으로 애쓰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영화로 제작한 것이라

고 하여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TV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방영이 되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실제 주인공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던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여성이 왜 만리타국에서 수감되어 있어야만 하는가 아니라 왜 그 여성과 남편이 대한민국 국 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방치되어야 하는지 그 상황 때문에 화가 났고,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실제 주인공과 그 남편은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괴로웠을까"라고 생각하니 남의 일 같지 않았고, 제가 하는 일에서도 누군가에게 극심한 좌절감과 절망감을 주었던 적은 없는 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인의 글자락에 "그 일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는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남들이 해 주지 못한 것'을 해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반복된 일상이지만 그 와중에 마주하게 되는 이 찰나의 순간은 저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고, 제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社說

‘불공정’ 기간제 교사 폐해 이대론 안 된다

신학기를 앞두고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채용사기가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가로채 달아나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 광주 북부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인 A씨는 광주 D고교 교사로 있던 김씨에게 정교사 채용을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건넸다가 채용은 물론이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19일에도 광주 남부경찰에 기간제 교사 B씨 등 5명이 D고교 교사 김씨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줬다고 고소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김씨에게 3000만~5000만 원까지 건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시월 비극이었던 한 장면이 이제는 희극으로 되풀이 되는 걸까요?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도 볼 수 없다." 영사증명서가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명 철회해야

광주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명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과 녹색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가 추천하지 않은 박상중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반하는 인사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5·18 기념재단 등 20여개 단체도 "안전행정부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활동을 벌여 이사장에 부적합하다는 추천위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에 박상중 목사를 임명했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목사의 이사장 임명은 절차와 인물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애초 기념사업회 쪽에 박 목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하라고 종용했다가 사업회가 이를 거부하고 정성현 전 이사장과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를 추천하자 이들이 아닌 박 목사를 낙점하는 무리

수를 줬다. 물론 안행부 장관이 인사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2001년 설립 이후 임명된 4명의 이사장을 보더라도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말 그대로 민주화를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며, 그 소중한 자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과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다. 따라서 정치적 색깔을 지닌 인사가 이사장을 맡게 되면 민주화의 정신과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박 목사는 지난 대선과 교회사 교과서와 관련, 공개적인 지지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박 목사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사장 선임에 다시 진행해야 한다. 그 경우 민주화회 측은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무다. 박 목사 역시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그동안 쌓아온 시민운동가로서 명예를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은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고 했다. 음식 속에는 출신 지역, 성장 환경, 품성 등 다양한 단서가 내포돼 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스타일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역대 대통령들의 식성과 성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해 화제다. 알런 히시 박사는 "일 자 채식이었다. 특히 홍어회를 즐겼는데 반적으로 인간은 성격과 반대되는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음식과 성격

하면서 "소심한 사람은 맵고 쫄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은 싱겁게 먹는다"고 분석했다. 리처드 닉슨은 케첩이 들어간 수프를 그릇으로 점심을 자주 때웠는데, 케첩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과 지향적이고 정복욕이 강한 성격이라고 한다. 체리를 좋아하는 조지 워싱턴은 적극적이며 일벌레 스타일이고, 돼지고기 튀김을 좋아한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는 사교적이고 관대한 성격으로 묘사했다. 오바마처럼 견과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절하고 우정을 중시하며 신중한 성격이다. 우리 대통령들은 어떨까.

김국수를 좋아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빨리 먹기로 유명했다. 재임시 청와대에 초청받아 간 인사들은 YS가 워낙 빨리 먹는 바람에 다 먹지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흔했다고 한다. 금융실명제나 군과법인 '하나회' 적결을 순식간에 처리한 것도 국수먹는 스타일과 닮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료의 신선도까지 정확히 알아내는 절대 미각의 소유자였다. 민주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무다. 박 목사 역시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그동안 쌓아온 시민운동가로서 명예를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른 반찬없이 된장에 흥여회 한 접시로 해결할 때도 많았다. 심지어 하면서도 4천5기의 강

한 대권 의지가 음식 스타일을 닮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큰한 소고기 국밥을 유독 좋아했다. 얼큰한 국물에 각종 채소가 들어간 시원하고 깔끔한 '시골장터 스타일'로 서민 대통령의 면모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식습관을 닮아 담백한 토속 음식을 즐긴다. 현미밥과 두릅나물 같은 채식 위주의 소식은 강단과 추진력있는 성품을 닮았다는 평가다. 호사기들의 평가일테지만 일면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다. /정필수 정치부장bungy@kwangju.co.kr

기고



임형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

사람들은 모두들 새로운, 처음이라는 '신(新)'이라는 글자, 사건, 물건 등에 관심을 쏟는다.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갖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적응이 되고 어느새 평범한 물건이 되어 우리 곁에 남는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독감 중 하나인 신종플루도 2009년에 출현하여 지금은 5년이 지난 구종플루로 인플루엔자 A형 독감이다. 모두들 신종이라는 옛날 명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항원 변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크고 작은 항원 변이는 거의 매년 일어나며 이러한 항원 변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인플루엔자의 유행 또는 대유행이 초래된다. 항원 변이에는 항원 대변이와 항원 소변이 두 가지가 있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의 HA와 NA의 변이와 관련된다. 항원 대변이는 A형 인플루엔자에서만 가능하며, 기존 유행주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 중 HA 또는 NA가 전혀 새로운 아형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형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에서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대유행은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게 된다. 2009년 신종플루라 불리던 신형 바이러스 H1N1도 대변이를 거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바이러스이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이 면역이 없어서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일으켰으며 국내에서도

7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합병증 등으로 약300여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이었지만 백신이 개발된 현재는 일반 'A형 독감'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각구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는 65세이상 노약층 및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여 매년 30여만명이 신종플루(H1N1) 항원이 포함된 독감접종을 실시하여 넓은 면역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면역은 감염병 관리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집단면역이란 대다수 개체가 면역을 가짐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감염성 병원체 전파 차단 및 질병 발생 예방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비면역 집단이 있지만 면역을 가진 사람들 덕분에 질병을 옮기는 사람이 줄어들어 유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신종플루(H1N1)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단면역이 생겨서 유행수준으로 마무

리 될 것이다. 또 꾸준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집단면역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면 이론적으로는 이 질병의 퇴지도 가능하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독감 유행시기에 따라 독감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이플루 수급현황을 점검하여 환자발생 및 신속한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유행하는 독감은 계절적, 일시적인 현상으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곧 겨울이 가고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찾아오면 일시적으로 계절 독감이 유행하겠지만, 이를 대비하여 적절한 운동과 자주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다중이 모인 공공장소 등에서 기침이나 재채기시 손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는 에티켓을 준수한다면 더 이상의 독감 전파 및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찬란한 봄이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이다.

국내 농가 피해주는 외국과일 불법 반입 절대 안돼

최근 태국 푸켓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있던 일이다. 출국때와 마찬가지로 귀국때도 신고서를 쓰게 됐는데, 옆 자리에 앉은 주부와 그 남편인듯한 두 사람이 나지막이 하는 말이 들렸다. "여기 우리가 갖고 들어온 과일류가 있는 지 적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주부가 묻자 남편은 "뭘 일일이 체크하겠어? 그냥 아무것도 안가져오는 걸로 해봐"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 부부는 열대과일을 몰래 가져오고 있는듯 했다. 외국산 과일은 그게 어떤 종류가 되었든 국내 식물체계의 혼란을 막고, 자칫 악성 병충해가 퍼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비행기에서 내려입국 신고를 하게 됐다. 운이 없게도(?) 옆자리의 그 부부 가방에 있던 망고가 식물검역소 직원의 눈에 띄었다. 직원은 "생과일류는 반입이 금지다"며 이를 폐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아이들이 망고를 좋아해서 먹여볼려고 사온건데 몇 개만이라고 안되겠냐"고 했지만, 그러다고 뭘 일이 아니다. 검역 담당 직원은 "망고 안에 해충이 들 어있을수 있고, 그게 국내 농가에 유입되면 피

해가 커진다"고 재차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 부부가 불법 과일 반입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수가 없었지만 어떤 제재가 있었을 걸로 안다. 요즘 해외여행이 무척 많아졌다. 덩달아 외국의 유행이 국내로 들어와 우리 농가에 퍼지고, 피해를 주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규정과 법규를 지키는 것이 의무를 위한 집임을 명심하자. ▲김순자·광주시 북구 각회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 1부 2200-661	경영지원본부 2200-515 <F A X 222-8005>	문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 2부 2200-65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제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